



Analog 접지와 Digital 접지의 비교

구분	기존 피뢰설비	에카(eca3G)
구성장치 (부속자재)	 <p>피뢰침, 피뢰침 폴대, 피뢰도선 SPD: 전원, 통신, 신호, 바이패스용 접지봉, 저감재, 접지용전선, 부속자재</p>	 <p>에카(eca3G)</p>
설치방법	땅을 파고 접지봉과 저감재 매설 비싼 피뢰침을 여러 곳에 설치 전원, 통신, 신호, 바이패스형 SPD를 각각 독립적으로 설치	피보호설비용 전원분전반에 설치 모든 피보호설비 접지단자를 연결하는 작업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
소요비용	SPD+땅파기+접지봉+저감재+공사비 등으로 전체 소요비용이 매우 많다. ex. 통신대대 6,000만원	에카(eca3G) 하나 전체 소요비용이 매우 적다. ex. 통신대대 3,000만원 (50% 절감)
공사기간	땅파기, 접지봉, 저감재, SPD, 피뢰침 설치로 공사기간이 매우 길다. (20일) 중장비, 인력터파기, 보링장비, 외부작업	지상 분전반에 간단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매우 짧다. (2일) 간편한 내부설치 작업
이동성	고정설치로 인해 이동이 불가능하다.	탈부착이 자유로워 이동이 편리하다.
유지관리	땅 속에 고정설치되어 유지관리 불가능하고, 가능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분전반에 있어 언제든지 유지관리가 쉽고, 가능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기술·과학성	피뢰침(18C), 전해질 접지봉(20C), SPD(20C)는 18~20세기의 Analog 기술로 디지털전자장비 보호에 부적합하다.	3세대 디지털 접지장치 에카(eca3G)는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첨단 전자통신장비 보호에 적합한 과학적인 접지장치이다.
친환경성	중장비를 이용하여 땅을 파고 접지봉과 저감재를 땅 속에 매설하여 토양오염과 탄소 배출이 많다.	중장비가 필요없고, 지상에 간단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토양오염과 탄소 배출이 '0'이다.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PL)	낙뢰피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PL 보험 계약 없음.	낙뢰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배상된다. PL보험 1억 원 가입(현대해상)

